

유란시아서

<< [제 116 편](#) | [부분](#) | [내용](#) | [제 118 편](#) >>

제 117 편

최상위 하나님

117:0.1 (1278.1) 우리가 어떤 우주 정거장에서 존재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범위까지, 그만큼 **최상위**의 전능한 잠재성은 한 걸음 더 사실에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근원 중심**의 목적이요, 이는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성이 되고 **영원한 아들** 속에서 성격이 되고, **무한한 영** 안에서 우주 활동을 위하여 연결되고,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원본에서 영원하게 된 바와 같다. 그리고 **최상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 의지의 유한한 최대 명시가 되고 있다.

117:0.2 (1278.2) 대우주에 사는 존재들이 모두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행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성취한다면, 그때 시공의 창조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될 것이다. 그때 **최상위**의 신 잠재성인 **전능자**는 **최상위 하나님**의 신다운 성격이 솟아나면서 사실이 된다.

117:0.3 (1278.3) 진화하는 지성이 우주 지성 회로와 조율이 될 때, 진화하는 우주가 중앙 우주의 모습을 따라서 안정될 때, 진보하는 영이 **으뜸 영**들의 통합된 봉사와 접촉할 때, 하늘 가는 필사 인격자가 깃드는 **조절자**의 신성한 이끄심과 마침내 조율이 될 때, 이때 **최상위**의

사실성은 여러 우주에서 한 눈금만큼 더 현실이 된다. 이때 **최상위**의 신성은 우주에서 실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117:0.4 (1278.4) 대우주의 부분과 개인들은 **최상위**의 총 진화가 반영(反映)된 것으로서 진화하며, 한편 다음에 **최상위**는 모든 대우주의 진화를 통합한 누적 합계이다. 필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은 서로 진화적 · 체험적 역수(逆數)이다.

1. 최상 존재의 성품

117:1.1 (1278.5) **최상위**는 물리적으로 조화된 아름다움이요, 지적 의미가 있는 진실, 영적 가치가 있는 선(善)이다. 그는 참된 성공의 단 맛이요, 영구한 성취에서 얻는 기쁨이다. 그는 대우주의 대혼(大魂)이요, 유한한 우주의 의식(意識), 유한한 실체의 완성이요, **창조자**와 인간의 체험이 성격화된 것이다. 모든 앞날의 영원을 통하여, **최상위 하나님**은 신의 여러 삼자일체 관계에서 의지(意志)한 체험의 실체를 표현할 것이다.

117:1.2 (1278.6) **최상 창조자**들의 몸을 입고서 신들이 **파라다이스**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영토로 내려왔으니, 이는 거기서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능력으로 **아버지**를 찾아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진화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려오는 **창조자**,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올라가는 인간들로 이루어진 이 우주 행렬은 **최상위**가 신으로 진화함을 드러내며, 그분 안에서 내려오는 자와 올라가는 자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영원히 보편적으로 형제임을

발견한다. **최상 존재**는 이처럼 원인인 완전한 **창조자**의 체험과 완전하게 되는 인간의 반응 체험을 유한하게 통합한 것이 된다.

117:1.3 (1279.1) 대우주는 완벽한 통일 가능성을 담고 있고, 늘 이를 추구한다. 이것은 이러한 우주적 존재가 아무 조건 없이 통일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창조 행위와 동력이 내린 명령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생겨난다. 바로 이 삼자일체의 통일성은 **최상위** 안에서 유한한 우주에서 표현되며, 그의 실체는 우주들이 **삼위일체** 신분의 최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서, 갈수록 더 분명해진다.

117:1.4 (1279.2) **창조자**의 뜻과 인간의 뜻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것들은 체험적으로 비슷하니, 이는 인간과 **창조자**가 우주의 완전을 이룩하는 데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하여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한 최후자를 함께 창조한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육신화될 때 인간으로서도 일할 수 있고, 이 아들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간이 되는 최고의 체험을 얻는다.**

117:1.5 (1279.3) **최상 존재**의 경우에, **창조자**와 인간은 하나의 신 안에서 뭉치며, 그의 뜻은 하나의 신다운 성격을 표현한다. **네바돈의 주 아들**의 최고 의지가 이제는 신과 인류의 뜻의 조합보다 더 큰 무엇인 것과 같이, **최상위**의 이 뜻은 인간이나 **창조자**의 뜻보다 더 큰 무엇이다. **파라다이스**의 완전함과 시공 체험의 연합은 실체의 신 수준에서 새로운 의미를 지닌 가치를 낳는다.

117:1.6 (1279.4) **최상위**의 진화하는 신다운 성품은 대우주에서 모든 생물과 모든 **창조자**의 비할 데 없는 체험을 충실히 나타내는 그림이 되고 있다. **최상위** 안에서, 지은 자의 신분과 지음받은 자의 신분이 한 몸이 된다. 모든 유한한 창조가 불완전의 사슬을 벗어나 완전과 해방을 찾아서 영원한 길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따르는 변천에서 생긴 바로 그 체험으로 인하여 그들은 언제까지나 하나가 된다.

117:1.7 (1279.5) 진실 · 아름다움 · 선은 영이 베푸는 봉사, **파라다이스**의 웅장함, **아들**의 자비, 그리고 **최상위**의 체험 안에서 서로 상관된다. **최상위 하나님**은 진실이요 아름다움이요 선이니, 이러한 신성 개념이 관념적 체험의 유한한 최대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신성의 이 삼자일치 품질의 영원한 근원은 유한 초월 수준에 있지만, 한 인간은 그러한 근원을 초월 진실, 초월적 아름다움, 초월적 선으로만 겨우 파악할 수 있다.

117:1.8 (1279.6) **창조자 미가엘**은 **창조자**로서 **아버지**가 지상의 자녀들에게 품는 신의 사랑을 드러냈다. 이 신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받았으니까,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동포에게 이 사랑을 드러내는 포부를 품을 수 있다. 인간의 그러한 애정은 **최상위**의 사랑을 참되게 반영하는 것이다.

117:1.9 (1279.7) **최상위**는 대칭으로 포함하는 성질이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은 위대한 세 **절대자** 안에서 잠재하며, **파라다이스**에서, **아들** 안에서, **영** 안에서 실재한다. 그러나 **최상위**는 실재하면서 잠재하며, 최상의 성격과 전능한 힘을 가진 존재요, 인간의 노력과 **창조자**의 목적에 똑같이 민감하고, 우주에 대하여 스스로 행동하고 우주의 총합에 대하여 스스로 반응하며, 동시에 최상의 **창조자**이자 최상의 생물이다. **최상위** 신은 이처럼 유한자 전체의 총합을 표현한다.

2. 진화적 성장의 근원

117:2.1 (1280.1) **최상위**는 시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다. 시간 지역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비결은 그에게 속한다. 불완전한 현재를 정복하는 것, 완전하게 되어 가는 미래를 완성하는 것이 또한 그에게 속한다. 모든 유한한 성장의 마지막 열매는 힘, 즉 통일하고 창조하는 성격이 계시는 덕택으로, 지성을 통해서 영이 통제하는 힘이다. 이 모든 성장이 마침내 가져오는 결과는 **최상 존재**이다.

117:2.2 (1280.2) 필사 인간에게, 존재는 성장과 마찬가지로이다. 더 큰 우주 의미에서도, 정말로 그러한 듯 보일 터인데, 영의 지도를 받는 존재는 체험적 성장 — 지위의 확대 — 를 초래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에 인간 존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현재의 성장은 **최상위**의 한 기능이라는 의견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녀왔다. 이 종류의 성장은 **최상위**가 성장하는 시대에 특이한 것이며, **최상위**가 성장을 마침내 함께 종결되리라고 우리는 똑같이 주장한다.

117:2.3 (1280.3) 인간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의 지위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현재 우주 시대에 태어나고 산다. 그들은 지성 · 영 재산과 함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체험을 겪고 그 기억을 지니지만, 하늘 가는 자처럼 자라지 않는다. 인간이 삼자일체로 낳은 이 아들들이 현재 우주 시대에 있지만, 정말로 그들은 다음 우주 시대 — **최상위**의 성장이 끝난 뒤에 다가올 시대 — 의 출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따라서 성장하는 **최상위**의 현재 상태의 시점에서, 그들은 **최상위 안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우주 시대의 체험적 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다음 우주 시대를 위하여 예비로 남아 있다.

117:2.4 (1280.4) 내 자신의 계급, **막강한 사자들은 삼위일체의 품에** 안겼으니까, 현재 우주 시대의 성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실로

삼위일체의 고정된 아들인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위는 지난 우주 시대에 속한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의 지위는 **삼위일체**의 품에 안김으로 고정되었고, 체험은 이제 더, 궁극에 성장을 낳지 않는다.

117:2.5 (1280.5) 이것은 최후자나 **최상위**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는 계급, 진화하고 체험하는 계급에 속하는 어떤 다른 자들에게는 참말이 아니다. **유란시아**에서 지금 살며, **파라다이스**에 이르고 최후자 지위를 얻는 큰 뜻을 품을 수도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너희가 **최상위** 속에 있고, 그에게서 나왔고, 따라서 **최상위**가 성장하는 주기(週期)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운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17:2.6 (1280.6) 언젠가 **최상위**의 성장이 끝날 것이다. 그의 지위는 (에너지와 영 의미에서) 완성될 것이다. **최상위**의 진화가 이렇게 그칠 때 또한 **최상위**의 일부로서 인간의 진화가 끝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장이 바깥 공간 우주들의 특징을 나타낼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곱 초우주가 진화하는 현재 우주 시대에 우리가 보아 온 어떤 것과도 매우 다른 무엇일 것이라 우리는 아주 확신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바깥 공간자들이 이렇게 **최상위**의 성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결핍을 메워 주는 것이 대우주에서 진화하는 시민들의 역할일 것이다.

117:2.7 (1280.7) 현재 우주 시대가 끝나고서 계실 **최상 존재**는 대우주에서 체험적 군주로서 활동할 것이다. 바깥 공간자 — 다음 우주 시대의 시민들 — 은 초우주 이후의 성장 잠재성을 가질 터이고, 이것은 전능한 **최상위**의 통치권을 미리 가정하는, 진화로 얻은 능력이며, 따라서 현재 우주 시대에 동력과 성격을 합성하는 데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

117:2.8 (1281.1) 이처럼 **최상위**의 불완전성은 미덕으로 여겨도 좋으니, 이는 그것이 현재 여러 우주에서 인간과 창조의 진화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어 있는 것은 미덕이 있으니, 빈 것이 체험으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17:2.9 (1281.2) 유한한 철학에서 가장 흥미를 자아내는 물음 중에서도 하나는 이것이다: **최상 존재**는 대우주의 진화에 반응하여 현실이 되는가, 아니면 **최상위**가 차츰 현실이 되는 데 반응하여 이 유한한 우주가 점진적으로 진화하는가? 아니면 성장하려고 그들이 서로 의존하는 것, 그들이 진화에서 역수(逆數)이고, 하나가 다른 하나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가? 다음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한다. 높고 낮은 생물과 우주들은 **최상위** 안에서 진화하고 있고, 그들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우주 시대의 유한한 활동 전체의 통일된 합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최상 존재**의 출현이요, 모든 성격자에게 **최상위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진화하는 것이다.

3. 우주의 인간에 대한 최상위의 중요성

117:3.1 (1281.3) **최상 존재**, **최상위 하나님**, 전능한 **최상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일컫는 우주 실체는 태어나는 단계에 있는 모든 유한 실체를 복잡하게 보편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영원한 에너지, 신다운 영, 우주 지성의 방대한 분화는 **최상위**의 진화에서 유한한 절정에 이르며, **최상위**는 모든 유한한 성장의 총합이요, 이것은 유한하게 최대로 완성하는 신 수준에서 스스로 실현한 것이다.

117:3.2 (1281.4) **최상위**는 공간에서 은하계의 전체 광경 속에 구체화되는 삼극일치들의 창조적 무한이 흐르는 신성한 경로이다. 그 광경을 배경으로 시간 지역에서 훌륭한 성격자의 드라마가 벌어지는데, 곧 지성의 중재를 통하여 영이 에너지와 물질을 정복하는 것이다.

117:3.3 (1281.5) **예수**는 말했다: “나는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그는 자의식을 가지는 물질 수준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 수준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이다. **예수**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도달하기까지 이 올라가는 생명의 길인 것 같이, **최상위**는 유한한 의식으로부터 의식을 초월하기까지, 아니 초한(超限) 통찰력까지 달성하는 생명의 길이다.

117:3.4 (1281.6) 너희의 **창조 아들**은 실제로, 인간이 신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의 경로일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이 **요수아 벤 요셉**, 즉 **사람의 아들**의 참된 인간성으로부터 **네바돈 미가엘**, 즉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의 **파라다이스** 신성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진보하는 이 길을 몸소 한껏 거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최상 존재**는 유한한 한계를 초월하는 우주 접근법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사람의 모든 진화, 진보, 영적 변화를 사실로 구현한 것이요, 몸소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성격자들의 대우주 체험조차 **최상 존재**가 겪는 체험의 일부이며, 바로 이것은 그가 시간 순례자의 하늘 가는 체험을 총합한 것을 보완한다.

117:3.5 (1281.7) 필사 인간은 비유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한 존재이다. 물리적 관점에서, 이 말은 도저히 참말이 아니지만, 어떤 우주 잠재성에 관하여 이것은 실제로 있는 사실이다. 온 우주에서 광대하게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진화로 달성하는 바로 그 드라마와 비슷한 무엇이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다. 사람, 즉 의지를 가진 인격자는, **최상위**의 유한한 잠재성이 있는 가운데, 비성격 개체인

조절자와 연락하여 창조성을 가지며, 그 결과로 한 불사의 혼이 자란다. 여러 우주에서 시공의 창조 성격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비성격 영과 연락하여 활동하며, 이렇게 함으로 신 실체의 새로운 동력 잠재성을 창조하게 된다.

117:3.6 (1282.1) **최상 존재**는 신이요, 필사 인간은 지음받은 자이니까, **최상 존재**와 똑같지 않지만 사람의 진화는 어떤 면에서 **최상 존재**의 성장과 비슷하다. 사람은 자신이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강하고 힘차고 끈질긴가에 따라서, 물질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향하여, 의식하면서 자란다. 사람은 또한 **조절자**가 영적 수준에서 상물질 혼의 수준까지 손을 뻗으려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함에 따라서 자란다. 일단 혼이 생기면, 혼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자란다.

117:3.7 (1282.2) 이것은 **최상 존재**가 성장하는 방법과 얼마나 비슷하다. 그의 통치권은 **최상 창조 성격자들**의 행위와 성취에서, 그리고 그리함으로 성장한다. 그것은 대우주의 통치자인 그의 웅대한 동력이 진화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신 성품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선행하는 통일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상위 하나님**의 진화에 아직도 또 다른 모습이 있다. 그를 **창조자**가 진화시키고 **삼위일체**가 파생시켰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유래한다. **최상위 하나님** 자신이 신으로 사실화하는 데 의도하여 창조에 참여한 자이다. 인간의 상물질 혼은 마찬가지로, 자체의 불멸화를 의도하는 공동 창조에 협동하는 자이다.

117:3.8 (1282.3) **파라다이스**의 에너지를 조종하고 그 에너지를 **최상위**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데, **아버지**는 **합동 행위자**와 더불어 일한다. **아버지**는 **창조자**인 성격자들을 낳기 위하여 **영원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이들의 활동은 언젠가 **최상위**의 통치권을 마침내 성취할 것이다. **최상위**의 진화가 완성되어 그가 그 통치권을 맡을 자격을

갖추게 할 때까지, 대우주의 통치자로서 활동할 **삼위일체** 성격자들을 창조할 때 **아버지**는 **아들**과 **영**, 두 분과 함께 일한다. **최상위**의 진화를 촉진하면서 이것과 기타 여러 방법으로, **아버지**는 신 및 신이 아닌 동급 존재들과 협동하지만, 그는 또한 이런 문제에서 홀로 활동한다. 그리고 그가 혼자 하는 활동은 아마도 **생각 조절자** 및 관련된 개체들이 베푸는 봉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117:3.9 (1282.4) 신은 통일성이요, **삼위일체**로서 실존적이고 **최상위**로서 체험적이며, 필사자의 경우에는 **조절자** 융합으로 인간이 실현하는 것이다. 필사 인간 속에 **생각 조절자**가 계심은 우주가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사람, 가능한 가장 낮은 부류의 우주 성격자는, 그 몸 안에 가장 높고 영원한 실체, 아니 모든 성격자의 처음 **아버지**의 실제 분신조차 품고 있다.

117:3.10 (1282.5) **최상 존재**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연락하는 덕택으로,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자식인 **창조자**와 행정가들이 신으로서 성공한 결과로 진화한다. 사람의 불멸하는 혼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신다운 계심과 교제함으로, 그리고 인간 지성이 내리는 인격 결정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진화시킨다. **삼위일체**와 **최상위 하나님**의 관계는 **조절자**와 진화하는 사람의 관계와 같다.

117:3.11 (1282.6) 시공의 창조 대리자들이 유한한 행동 가능성을 소모한 경우를 제쳐 놓고, 현재 우주 시대에 **최상 존재**는 **창조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없는 듯하다. 우주 역사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은 오직 한 번 벌어졌다. 우주 반영의 문제에서 유한한 행위의 가능성이 소모되었을 때, 이때 이 **최상위**는 모든 선행하는 **창조자**의 행위를 창조적으로 완성하는 자로서 활동하였다. 선행(先行)하는 창조권이 창조 활동의 적절한 주기를 마쳤을 때는 언제든지, 미래 시대에 완성자로서 그가 다시 활동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117:3.12 (1283.1) **최상 존재**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글자 그대로, **최상위**의 잠재성에서 창조되고, 사람의 바로 그 생명은 거기에서 파생되었다. 그는 사람을 진화시키지도 않는다. 그래도 바로 **최상위**가 진화의 바로 그 본질이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최상위**가 우주 안에 계신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117:3.13 (1283.2) **최상위**는 최초의 원인 작용을 비롯할 수 없는 듯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의 촉매인 듯하며, 겉보기에 체험으로 진화하는 모든 존재의 운명에 관하여 총체의 완성을 마련하도록 예정된 듯하다. **아버지**는 유한한 우주 개념을 비롯하신다. **창조 아들**들은 **창조 영**들의 찬성과 협동을 얻어서, 시공에서 이 개념을 사실로 만든다. **최상위**는 유한자 총체를 완성시키며, 그 총체와 초한자의 운명의 관계를 안정시킨다.

4. 유한한 하나님

117:4.1 (1283.3) 완전한 지위를 얻고 신다운 존재가 되려는 창조된 생물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건대, 우리는 이 끝없는 노력이 **최상위**가 신성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끝없이 투쟁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최상위 하나님**은 유한한 신이며, 그는 유한이란 낱말의 총 의미에서, 유한자의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공간 세계의 진화에서 세월의 변천과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그의 진화하는 성품이 가장 바깥 한계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있는 행동 분야 안에서, 그가 자아의 실체와 완성된 통치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영한다.

117:4.2 (1283.4) 대우주에서 두루, **최상위**는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의 신다운 진화는, 존재하는 모든 성격자의 지혜 및 행동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둔다. 한 인간이 영원히 살아남기를 택할 때, 그는 운명을 함께 창조한다. 이 하늘 가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유한한 **하나님**은 성격의 자아 실현이 늘어나고 체험적 통치권이 커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싫다고 걷어차면, 이 사람의 선택에 의존했던, **최상위**의 그 부분은 피할 수 없이 지연되며, 이 결핍은 갈아치우거나 평행하는 체험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은 창조의 대혼(大魂)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최상위** 신의 일부가 된다.

117:4.3 (1283.5)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신뢰하고 사랑하므로, 보호하고 자아를 실현하라고 신다운 성품의 한 조각을 인간의 손에도 맡긴다. 필사 존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성품, **조절자**의 계심은 파괴할 수 없다. 그러한 그릇 인도된 자아의 인격, 잠재적으로 통일하는 인격이 **최상위** 신의 한 요소로서 지속할 터이지만, 그렇다 해도, **최상위**의 아이, 진화하는 자아는 멸망할 수 있다.

117:4.4 (1283.6) 사람의 인격은 인간의 개성을 참으로 파괴할 수 있고, 비록 우주적 자살인 그러한 인생에서 가치 있었던 모든 것이 지속하겠지만, 이러한 품질은 개별 인간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최상위**는 여러 우주에 있는 인간들 속에서 다시 표현되겠지만, 결코 다시 그 특정한 인격자로서 표현되지는 않는다. 하늘 가지 않는 자의 독특한 인격은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듯 **최상위**에게 돌아간다.

117:4.5 (1284.1) 유한자의 인격 부분들이 어떤 고립된 행동을 하더라도, **최상위** 총체가 궁극에 출현하는 데 비교적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도 전체는 다양한 부분의 행위 합계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인격은 **최상위**의 총체가 계신 앞에 하찮은 것이지만, 각 사람의 인격은

유한자에 있는 갈아치울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대표한다. 인격은 일단 표현되고 나서, 살아 있는 그 인격자가 계속 존재할 경우를 제외하고, 결코 다시 동일한 표현을 찾지 못한다.

117:4.6 (1284.2)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최상위**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다음에 **최상위**는 만물의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찾아냈다.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를 통달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체험하는 **하나님**은 시공의 여러 우주에서 전능한 최상 지위에 도달하고 있다.

117:4.7 (1284.3) 인류는 우주에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서 올라가지 않는다. 의도하여 총명하게 활동하지 않고는 **최상위**도 진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수동적 태도로 완전을 얻지 않으며, **최상위**의 영도 유한한 창조에 그침 없이 봉사를 베풀지 않고서 **전능자**의 힘을 사실로 만들 수 없다.

117:4.8 (1284.4) 사람이 **최상위**와 현세에 가지는 관계는 우주 도덕성, 곧 의무에 대한 보편적 민감성을 기르고 의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현세의 감각을 뛰어넘는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자의식하는 인간이 체험하는 신에게 지는 체험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직접 달려 있다. 필사 인간과 모든 다른 유한한 생물은 **최상위** 안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 지성 · 영의 살아 있는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된다. **조절자**인 필사 승천자는, 최후자의 불멸하는 신다운 인품을 창조하는 데 **최상위**에게 의존한다. **최상위**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 인간 의지의 찬성을 얻어서, **조절자**는 **하나님**의 하늘 가는 아들의 영원한 성품을 무늬로 엮는다.

117:4.9 (1284.5) 사람의 인격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하게 만드는 일에 **조절자**의 진보적 진화는 **최상위**의 통치권을 직접 확대한다. 인간의 진화에서 그러한 업적은 동시에, **최상위**가 진화로 현실화하는 업적이다. 인간이 **최상위** 없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참말이지만, 모든 인간의 완성된 진화와 상관없이 **최상위**의 진화가 결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참말일 것이다. 여기에 자의식하는 인격자들의 큰 우주 책임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최상 신**은 필사자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람의 진화와 **최상위**의 진화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탐구할 수 없는 우주 거울 작용을 거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충실하고 충분하게 표시된다.

117:4.10 (1284.6) 필사 인간이 닥친 큰 도전은 이것이다: 너는 우주의 체험할 수 있는 가치 의미를 바로 너의 진화하는 자아 속으로, 개인용으로, 투입하려고 결심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기회를 건너참으로, 어떤 다른 때에 유한한 **하나님**의 진화에 인간의 기여를 자기 방법으로 시도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너는 **최상위**의 이 비밀이 누워서 자도록 버려 둘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너의 기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최상위**에게 기여한 것이겠다.

117:4.11 (1284.7) 지금 우주 시대의 큰 싸움은 잠재하는 것과 실재하는 것 사이에 있다 — 아직까지 표현되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이 되기를 추구한다. 필사 인간이 **파라다이스** 모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는 시간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고, 시간은 영원의 넷물 속에서 물살로서 흐른다. 필사 인간이 영원한 생애를 싫다고 물리치면, 그는 유한한 우주에서 사건들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다. 기계적 창조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펼쳐지는 목적에 따라서 용서 없이 계속 움직이지만, 의지를 가진 창조는 영원의 모험에 인격이 참여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선택이 있다. 필사인은 인간의 존재에서 최고의 가치를 파괴할 수 없지만, 그가 몸소 겪는 체험에서 이 가치의 진화를 아주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물리치는 한, 바로 그 한도까지 **최상위**는 대우주에서 신을 표현하는 데 늦어진다.

117:4.12 (1285.1) 필사 인간에게 보관하라고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조절자**의 계심을 맡겼을 뿐 아니라, 또한 **최상위**의 미래의 극미(極微) 부분의 운명을 통제하는 권한도 맡겼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의 운명에 도달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최상위**도 신 수준에서 운명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117:4.13 (1285.2) 그래서 한때 우리 각자를 기다렸던 것 같이, 결정이 너희 하나하나를 기다린다: 너는 유한한 지성이 내리는 결정에 무척 의존하는, 시간 세계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너는 동물처럼 후퇴하는 게으름으로 우주들의 **최상위** 성격자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너는 각 사람에게 그토록 의존하는, 모든 인간의 위대한 형(兄)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우주 생애의 황홀한 경치 —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신성하게 발견하고, **최상위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진화에 신답게 참여할 기회 — 가 네 앞에 놓여 있는 마당에, 너는 실현하지 못한 자의 영토로 자신이 사라지도록 버려 둘 수 있는가?

117:4.14 (1285.3) **하나님**의 선물 — 그가 수여하는 실체 — 는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창조를 멀리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를 도는 여러 창조에서 긴장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불사의 — 영원한 실체가 되는 — 잠재성을 수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서, 사람은 사실로 영원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현실성 — 사실성 — 은 더욱 커진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날수록, 더욱 가까이 그는 비현실 — 존재의 그림 — 에 접근한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그의 뜻을 거룩히 바칠 때,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 신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

5. 창조의 대혼

117:5.1 (1285.4) 위대한 **최상위**는 대우주에서 우주적 대혼(大魂)이다.

최상위 안에서 우주의 질과 양은 신(神)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그의 신 성품은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 두루, 모든 생물과 **창조자** 성품의 광대한 총합을 모자이크로 복합한 것이다. 그리고 **최상위**는 또한 현실화되고 있는 신이며,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함하는 창조 의지를 구현(具現)한다.

117:5.2 (1285.5) 유한자의 지적 자아, 잠재 인격 자아들은 **셋째 근원**

중심에서 태어나며, 시공에서 유한한 신의 통합을 **최상위** 안에서 이룩한다. 사람이 **창조자**의 뜻에 복종할 때, 그는 자기 인격을 덮어 가리거나 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하나님**의 현실화에 참여하는 개별 인격자들은, 그렇게 활동함으로 의지하는 자아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인격자들은 신의 이 큰 모험에 참여함으로 점진적으로 커진다. 신(神)과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 사람은 그의 진화하는 자아를 최고의 자리 바로 그 문턱까지 높이고, 강화하고, 영답게 변화시키고 통일한다.

117:5.3 (1286.1) 사람의 진화하는 불멸의 혼, 곧 물질 지성과 **조절자**가 합동으로 창조한 것은 그런 자격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며, 나중에 **최후 군단**에 소집되었을 때, 최후자 초월이라고 알려진 체험 기법으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引力) 회로와 연합된다. 이처럼 그러한 최후자는 **최상위 하나님**의 인격자로서 체험적 인정을 얻기에 적절한 후보자가 된다. **최후 군단**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래 임무에서 이 필사 지능들이 일곱째 단계의 영 존재에 다다를 때, 그러한 이중 지성은 삼자일치가 된다.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신, 조율된 이 두 지성은 이때 현실화된 **최상 존재**의 체험적 지성과 연합한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이다.

117:5.4 (1286.2) **우주의 아버지**가 땅에서 **예수**의 일생에서 그렇게 드러난 바와 같이, 영원한 앞날에, **최상위 하나님**은 하늘 가는 사람의 영답게 변화된 지성, 불사의 혼 속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 창조적으로 표현되고 영적으로 묘사될 것이다.

117:5.5 (1286.3) 사람은 **최상위**와 하나되어 그의 인격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체험으로 우주에 반응한 것은 이처럼 **최상위**가 신으로서 겪는 체험의 일부를 이룬다. “행동은 우리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정한다.”

117:5.6 (1286.4) 진보하는 인격은 여러 우주에서 올라가는 수준들을 통과함에 따라서, 현실화된 실체의 자취를 남긴다. 시간과 공간에서 성장하는 우주들은, 지성이든 영이든 에너지이든, 그들의 영토를 통하여 인격이 진보함으로 수정된다. 사람이 행동할 때, **최상위**가 반응하며, 이 거래는 사실로 진보가 된다.

117:5.7 (1286.5) 대단한 에너지 · 지성 · 영 회로들은 결코 하늘 가는 인격자의 영구한 소유물이 아니다. 이러한 봉사는 언제까지나

최상위의 일부로 남는다. 필사자의 체험에서 인간의 지능은 보조 지성 영들의 리듬 있는 맥박 안에 거하며, 이 봉사 안에서 회로가 연결되어 생긴 무대 안에서 지능이 결정한 것을 집행한다. 필사자가 죽고 나서 인간의 자아는 보조자 회로에서 영구하게 떨어져 나간다. 이 보조자들은 결코 인격자들 사이에 체험을 전달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칠중 신**을 거쳐서 **최상위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결정과 행위에 대하여 비인격 반응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적어도 이것이 예배 보조자와 지혜 보조자에게 참말이다.)

117:5.8 (1286.6) 영적 회로의 경우에도 그렇다: 사람이 여러 우주를 거쳐 올라가면서 이 회로들을 이용하지만, 결코 그의 영원한 인격의 일부로서 회로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 봉사를 베푸는 이 회로들은, **진실의 영**이든, 성령이든, 또는 초우주 영들의 계심이든, 하늘 가는 인격자 안에서 태어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하며, 이 가치는 **칠중자**를 거쳐서 **최상위**에게 충실하게 전달된다.

117:5.9 (1286.7) 성령과 **진실의 영**과 같은 영적 영향은 지역 우주에서 베푸는 봉사이지만, 그들의 안내는 한 주어진 지역 창조의 지리적 한계에 온전히 국한되지 않는다. 하늘 가는 필사자가 자기가 태어난 지역 우주의 경계를 지나서 갈 때, 승천하는 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길이라” 늘 말하며 **파라다이스** 순례자를 어김없이 지도하면서 물질 세계와 상물질 세계의 철학적 미로를 거쳐서 항상 가르치고 안내한 **진실의 영**의 봉사를 사람은 통째로 빼앗기지 않는다. 네가 지역 우주의 영토를 떠날 때, 태어나는 **최상 존재**의 영이 베푸는 봉사를 통해서, 초우주 거울 시설을 통해서,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길에 **파라다이스**에서 수여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 위로하고 지도하는 영이 여전히 너를 안내할 것이다.

117:5.10 (1287.1) 우주에 봉사하는 이 다양한 회로들이 어떻게 **최상위** 안에 진화로 얻은 체험의 의미와 가치와 사실을 기록하는가? 우리는 꼭 확신한다고 할 수 없지만, **파라다이스**에서 기원을 가진 **최상 창조자**들의 몸을 통해서 이러한 기록이 진행된다고 믿으며, 그들은 이 시공 회로들을 직접 수여했다. 일곱 보조 지성 영의 지성 체험의 축적은, 그들이 물리적 수준의 지능에게 봉사를 베푸는 동안 **신성한 봉사자**의 지역 우주 체험의 일부이며, 이 **창조 영**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 아마도 **최상위**의 지성 안에 기록된다. 마찬가지로 필사자가 **진실의 영** 및 성령을 겪는 체험은 아마도 비슷한 기법으로 **최상위**의 몸에 기록된다.

117:5.11 (1287.2) 사람과 **조절자**의 체험조차 **최상위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반응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체험을 겪는 동안 **조절자들은 최상위**와 비슷하며, 필사인의 진화하는 혼이 **최상위** 안에서 그런 체험을 얻을 선재하는 가능성으로부터 창조되기 때문이다.

117:5.12 (1287.3) 이 방법으로 모든 창조의 다양한 체험은 **최상위**의 진화의 일부가 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은 다만 유한한 것의 질과 양을 이용한다. 그렇게 이용해서 생기는 비인격 결과는 살아 있는 우주, 즉 **최상위** 몸의 일부로 언제까지나 남는다.

117:5.13 (1287.4) 인격의 소유물로서 사람이 몸에 지니는 것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면서 대우주의 지성 회로와 영 회로를 사용한 체험이 인품에 미친 결과이다. 사람이 결심할 때, 이 결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은 체험하며, 이 체험의 의미와 가치는 유한 수준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수준에서 언제까지나 그의 영원한 인품의 일부이다. 우주에서 도덕적이고 신답게 영적인 인품은, 성실한 예배로 빛을 받고, 지적 사랑으로 영화롭게 되고, 형제에게 봉사함으로 완성된 개인적 결정이 인간의 자본으로 축적되었음을 가리킨다.

117:5.14 (1287.5) 진화하는 **최상위**는 유한한 인간이 언제라도 온 우주와 제한된 체험 접촉을 가진 것보다 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궁극에 보상할 것이다. 인간은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지만, 진화로 얻은 그들의 지성은 유한하니까, 무한하고 절대적인 **아버지**를 정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체험이 **최상위** 안에 기록되고 그의 일부이니까, 모든 사람이 유한 존재의 마지막 수준에 다다를 때, 우주 발전 전체가 실제 신으로 계신 **최상위 하나님** 앞까지 그들이 도달할 수 있게 만든 뒤에, 이때 그러한 접촉을 가진 사실에 본래부터, 총 체험과 접촉이 생긴다. 시간 세계의 유한자는 자체 안에 영원의 씨앗을 품고 있다. 진화가 충만히 진행되고 우주의 성장 능력을 다 써버렸을 때, 유한자 총체는 **궁극위인 아버지**를 찾아서, 영원한 생애의 여러 초한(超限)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

6. 최상위를 찾기

117:6.1 (1287.6) 우리는 여러 우주에서 **최상위**를 찾지만,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는 움직이며 고요하며, 모든 사물과 존재 안에, 또 그 바깥에 계시느니라. 그는 신비 속에 가려 알아볼 수 없고, 멀어도 가까우니라.” 전능한 **최상위**는 “아직 빚어지지 않은 것의 형체요, 아직 짓지 않은 것의 원본이라.” **최상위**는 너희의 우주 집이요, 너희가 그를 찾아낼 때, 이는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너희의 체험하는 부모요, 인간의 체험에서 그런 것 같이, 그는 신으로서 부모 체험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 그는 너희를 알고 있으니, 이는 그가 **창조자** 같을 뿐 아니라, 인간 같기 때문이다.

117:6.2 (1288.1)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으면, 너희는 **최상위** 의식을 머리 속에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의 신다운 **아버지**인 것 같이, **최상위**는 너희의 신다운 **어머니**요, 그분 안에서 너희는 우주의 인간으로서 너희의 생애 동안 내내, 양육된다. “**최상위**는 얼마나 보편적인가 — 그는 사방에 계시도다! 창조의 한없는 사물이 사는 것은 그의 계심에 의존하며, 그는 아무도 싫다고 물리치지 않도다.”

117:6.3 (1288.2) **미가엘**과 **네바돈**의 관계는 **최상위**와 유한 우주의 관계와 같다. 그의 신성은 **아버지**의 사랑이 바깥으로 모든 창조에게 흘러 나가는 큰 길이요, 그는 유한한 인간이 **아버지**를 찾아서 안으로 거쳐가는 큰 길이며, **아버지**는 사랑이다. **생각 조절자**조차 그와 관련되어 있다. 최초의 성품과 신성으로 보면 **조절자**는 **아버지**와 같지만, 공간의 여러 우주에서 시간 세계의 거래를 체험할 때 **조절자**는 **최상위**와 같아진다.

117:6.4 (1288.3) 인간이 **창조자**의 뜻을 행하려고 선택하는 행위는 우주적 가치가 있으며,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는 어떤 조정 세력이 즉시 반응하는 그러한 우주 의미가 있고, 그 세력은 아마도 **최상 존재**의 늘 확대되는 행위의 작용일 것이다.

117:6.5 (1288.4) 진화하는 필사자의 상물질 혼은 정말로 **우주의 아버지**의 **조절자** 행위에서 생긴 아들이요, **최상 존재**, 곧 **우주의 어머니**의 우주 반응에서 생긴 자식이다. 성장하는 그 혼이 지역 우주에서 지내는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내내, 어머니의 영향은 그 인격을 지배한다. 신 부모의 영향은 **조절자**와 융합이 있는 뒤에, 초우주 생애 동안에 더 비등해지지만, 시간 세계의 인간이 영원한 중앙 우주를 통과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의 성품은 갈수록 더 명백히 나타나며, **우주의**

아버지를 인식하고 **최후 군단**에 들어가고 나서 최대한 유한하게 명시(明示)된다.

117:6.6 (1288.5) 최후자에 이르는 체험 속에서,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 하늘 가는 자아의 체험적 어머니 성질은 **영원한 아들**의 영적 계심과 **무한한 영**의 지성 계심과 접촉하고 주입을 받음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에 대우주에서 최후자의 활동 영역에 두루, **최상위**의 잠자는 어머니 잠재성의 새로운 각성, 체험의 의미를 새로이 깨닫는 일, 하늘 가는 생애 전체의 체험적 가치의 새로운 통합이 나타난다. **최상위**가 어머니로서 주는 유산이 **아버지**의 **조절자** 유산과 유한한 동시성을 얻을 때까지, 여섯째 단계 최후자의 우주 생애에서 이러한 자아 실현이 계속될 듯하다. 흥미를 자아내는 이 대우주 활동 기간은 하늘 가는, 완전해진 필사자의 연속되는 어른 생애를 의미한다.

117:6.7 (1288.6) 여섯째 단계의 존재를 마치고, 일곱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영 지위에 들어가고 나서, 체험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성숙하고, 신성을 깨닫는 상급 시대가 아마도 뒤따를 것이다. 최후자의 성품에서 이것은 아마도 영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지성의 투쟁을 마친 것, 하늘 가는 사람의 성품을 유한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신다운 **조절자** 성품과 조정하는 일을 마친 것과 대등할 것이다. 그러한 훌륭한 우주 자아는 어머니 **최상위**가 우주에서 기른 영원한 아이일 뿐 아니라, 이렇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 최후자가 되며, 그 아이는 창조되었거나 창조하고 있거나 진화하는 사물 및 존재들의 유한 행정부에 관계되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에서도, 우주와 성격자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대표할 자격을 갖춘 우주 자아이다.

117:6.8 (1289.1) 혼을 진화시키는 모든 인간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최상 존재**인 어머니 **하나님**이 낳은 진화적 아들이다. 그러나 필사 인간의 혼이 그의 신다운 혈통을 의식하게 될 때까지,

신과 친척 관계를 가졌다는 이 확신을 믿음으로 얻어야 한다. 인간의 사는 체험은 우주의 고치이며, 그 속에서 **최상 존재**의 우주 재산과 **우주의 아버지**의 우주 계심이 (어느 것도 성격이 아니다) 시간 세계에서 상물질 혼, 그리고 우주 운명을 가지고 영원히 봉사할 인품, 인간이자 신다운 최후자 인품을 진화시키고 있다.

117:6.9 (1289.2)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큰 체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 다른 체험의 성질과 내용은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 아무 한계가 없으며, 바로 이 체험은 그 자체로서 능력을 키운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찾아낼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찾아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요, 거기에는 주어야 할 새롭고 더 큰 사랑을 놀랍게 발견하는 일이 뒤따른다.

117:6.10 (1289.3) 모든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으며, 이것은 마치 사람이 이 사랑을 동료들에게 주는 것과 같다. 사랑은 힘차다. 결코 사랑은 붙잡아 둘 수 없다. 사랑은 팔팔 살아 있고, 자유롭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며, 언제나 움직인다. 사람은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서 마음 속에 가두어 둘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필사 인간이 다시 이 사랑을 동료들에게 베푸는 동안, 그 사람의 인격을 거쳐 감으로 그에게 현실이 될 수 있다. 사랑의 큰 회로는 **아버지**로부터 오며, 아들들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최상위**에게 미친다. **아버지**의 사랑은 깃드는 **조절자**가 봉사함으로 필사 인격 안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아들은

이 사랑을 우주의 형제들에게 드러내며, 이 형제 사랑은 **최상위**의 사랑의 본질이다.

117:6.11 (1289.4)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 **최상위**에게 가까이 가는 길은 없다. 현재의 창조 시대에는 인간이 **최상위**에 다가가는 길이 오직 세 가지 있다:

117:6.12 (1289.5) 1. **파라다이스** 시민은 영원한 섬에서 **하보나**를 거쳐서 내려오며, 거기서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실체의 차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으뜸 영**들로부터 **창조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최상 창조 성격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탐구하여 발견함으로 그들은 **최상위**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는다.

117:6.13 (1289.6) 2. **최상 창조자**들의 진화 우주에서 올라오는 시공의 승천자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통일성을 더욱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 **하보나**를 거치면서 **최상위**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117:6.14 (1289.7) 3. **하보나** 원주민은,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순례자, 그리고 일곱 초우주로부터 올라가는 순례자들과 접촉함으로 **최상위**를 이해하게 된다. **하보나** 원주민은 본래부터, 영원한 섬의 시민과 여러 진화 우주의 시민의 관점,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들을 조화시키는 자리에 있다.

117:6.15 (1290.1) 진화하는 인간에게는 **우주의 아버지**께 도달하는 일곱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고,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이 여러 길은 각각, 일곱 **으뜸 영** 가운데 하나의 신성을 통과한다. 그러한 각 접근법은 그 **으뜸 영**의 성품을 반영하는 초우주에서 인간이 봉사한 결과로서, 체험 감수성이 커짐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 일곱 가지 체험의 총합은 **최상위 하나님**의 실체와 사실성을 인간이 의식하는, 현재 알려진 한계이다.

117:6.16 (1290.2) 사람이 유한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사람의 한계만이 아니다. 우주의 불완전성도 또한 그렇게 만든다. 모든 — 지난날 · 오늘날 · 앞날의 — 생물의 미완성조차 사람이 **최상위**를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을 닮은, 신다운 수준에 이른 어떤 개인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완전을 달성함으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발견하는 그 아득한 시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최상위 하나님**을 결코 개인적으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117:6.17 (1290.3)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우주 시대에, 너희가 **최상위**를 개인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도 **파라다이스**에 올라가는 것과 그 뒤의 우주 생애는 너희의 의식 속에서, 모든 체험의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고 우주에서 활동하심을 차츰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영의 열매는 인간의 체험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상위**의 본질이다.

117:6.18 (1290.4) 사람이 언젠가 **최상위**에 도달하는 것은 그가 **파라다이스** 신의 영과 융합하는 결과로서 생긴다. **유란시아인**에게 이 영은 **우주의 아버지**가 **조절자**로 계시는 것이다. 비록 **신비의 훈계자**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 같더라도, 그러한 신의 선물조차 무한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의 유한한 인간에게 드러내는 불가능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 우리는 의심이 든다. **조절자**가 앞날에 일곱째 단계의 최후자에게 드러낼 것은 **최상위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일 것이라 우리는 추측한다. 그리고 이 계시(啓示)와 유한한 인간의 관계는 무한자의 계시와 절대 존재의 관계와 같을 것이다.

117:6.19 (1290.5) **최상위**는 무한하지 않지만, 아마도 유한한 인간이 일찍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무한성 모두를 품는다. **최상위**를 넘어서 더 이해하는 것은 유한보다 크게 되는 것이다!

117:6.20 (1290.6) 체험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그들의 운명을 실현하는 데 서로 의존한다. 오로지 실존적 실체가 스스로 충분하고 스스로 존재한다. **하보나**와 일곱 초우주는 최대의 유한한 달성을 위하여 서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유한자의 초월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언젠가 바깥 공간의 미래 우주들에 의존할 것이다.

117:6.21 (1290.7) 하늘 가는 사람은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 총 우주에서 체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존적이며, 따라서 실재한다. 그러나 모든 승천자가 이 **최상위**의 발견에 동시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 만큼 우주에서 최대로 성숙해졌을 때까지, 혼자서 하늘 가는 사람은 누구나 결코 **최상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117:6.22 (1290.8)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늘 가는 아들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주의 개인으로서 대우한다. 마찬가지로 **최상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는 체험하는 자녀들을 단일 우주 총체로서 대우한다.

117:6.23 (1290.9) 사람은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는 모든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최상위**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최상위**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때, 이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한 우주 실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리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117:6.24 (1291.1) 모든 인격자가 완전하게 된 자아 실현에 이르고, 또 우주에 두루, 완전하게 된 균형을 얻는 것은 **최상위**에 도달하는 것과 동등하며, 불완전한 존재의 한계로부터 모든 유한한 실체가 해방됨을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유한한 가능성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마침내 **최상위**에 도달하는 결과를 놓고, 이것은 바로 **최상 존재**가 진화로 현실화를 완성한 것이라 달리 정의(定義)해도 좋다.

117:6.25 (1291.2) 지진이 바위를 쪼개듯, 사람들은 갑자기, 볼 만하게 **최상위**를 발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이 그 밑에 있는 흙을 조용히 닳아 없애듯, 사람들은 **최상위**를 천천히, 참을성 있게 발견한다.

117:6.26 (1291.3) 네가 **아버지**를 발견할 때, 여러 우주에서 네가 영적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큰 원인을 발견할 것이다. 네가 **최상위**를 찾아낼 때, 너는 **파라다이스**로 진보하는 생애의 큰 결과를 발견할 것이다.

117:6.27 (1291.4)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어떤 필사자도 우주를 통해서 가는 나그네 길에 쓸쓸하지 않을 터이니, 이는 그 길의 걸음걸음 **아버지**가 옆에서 걷고, 한편 그가 거쳐 가는 바로 그 길이 **최상위**의 계신 앞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7. 최상위의 앞날

117:7.1 (1291.5) 모든 유한한 잠재성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모든 진화적 체험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최상위**가 우주에서 전능한 신의 계심으로서 마침내 솟아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발전 단계에서, **최상위**가 **영원한 아들**처럼 따로 성격화되고, **파라다이스** 섬처럼 구체적으로 동력화되고, **합동 행위자**처럼 완벽하게 통일되리라, 그리고 현재 우주 시대가 완성될 때, 이 모두가 **최상위**의 유한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117:7.2 (1291.6) 이것은 **최상위**의 앞날에 대하여 전적으로 적절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개념에 본래 있는 어떤 문제들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싶다:

117:7.3 (1291.7) 1. **최상위의 무제한 감독자들은** 그가 진화를 마치기 전 어떤 단계에서도, 도저히 신이 될 수 없다. 그래도 바로 이 감독자들은 지금도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우주들에 대하여, 어느 한도 안에서 최상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117:7.4 (1291.8) 2. **최상위의 우주 지위가** 완결된 사실이 될 때까지, 그는 **궁극 삼자일체** 안에서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 그래도 **궁극 삼자일체**는 지금도 제한된 실체이며, 너희는 **궁극위의** 제한된 대관들이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117:7.5 (1291.9) 3. **최상위는** 우주 생물에게 완벽하게 현실은 아니지만,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지역 우주의 **창조 아들**과 **창조 영들**에 이르기까지, **최상위가 칠중 신**에게 상당히 현실이라고 추론할 많은 이유가 있다.

117:7.6 (1291.10) 유한자의 위쪽 한계에서 시간은 초월 시간과 합쳐지는데, 거기서 순서가 얼마큼 흐려지고 섞이는 일이 있는지 모른다. **최상위는** 그의 우주 계심을 이 시간 초월 수준까지 예측하고, 다음에 **예측된 미완성자의** 내재(內在)로서, 이 미래 예측을 거꾸로 창조된 수준까지 반영함으로, 어느 한도 안에서 앞날의 진화를 예상하는지 모른다. **생각 조절자**가 깃드는 사람들이 겪는 체험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현상은 유한한 것과 유한을 초월하는 것이 접촉하는 데는 어디서나 관찰될지 모르고, **조절자**는 모든 영원을 통해서 사람이 앞날에 우주에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진정하게 예측한 것이다.

117:7.7 (1292.1) 필사 승천자가 **파라다이스의 최후자 군단**에 가입 허가를 받을 때, 그들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에게 선서하고, 이 충성 선서를 하면서 이것으로 **최상위 하나님**에게 영원한 충절을 서약하는 것이며, 그는 모든 유한한 사람의 인격이 이해하는 삼위일체이다. 나중에,

진화하는 우주들에 두루, 최후자 중대(中隊)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지역 우주들이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되는 그 중대한 시절까지, 그들은 오직 **파라다이스**에 기원을 가진 명령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완전하게 된 이 우주들의 새 정부 조직이 **최상위**의 태어나는 통치권을 비로소 반영함에 따라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최후자 중대들이 이때 그러한 새 정부의 사법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관찰한다. **최상위 하나님**은 진화하는 **최후 군단**의 통일자로서 진화하는 듯하다. 그러나 **궁극 삼자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상위**가 이 일곱 군단의 영원한 운명을 지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117:7.8 (1292.2) **최상 존재**는 우주에서 분명히 나타날 때 유한을 초월하는 세 가지 가능성을 품는다:

- 117:7.9 (1292.3) 1. 첫째 체험적 **삼자일체**에서 초한(超限) 공동 작업.
- 117:7.10 (1292.4) 2. 둘째 체험적 **삼자일체**에서 공동 절대적 관계.
- 117:7.11 (1292.5) 3. 가장 높은 **삼자일체**에서 공동으로 무한히 참여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흡족한 개념이 없다.

117:7.12 (1292.6) 이것이 **최상위**의 앞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설 중에 하나이지만, 현재 우주가 빛과 생명의 지위에 이른 뒤에 **최상위**와 현재 대우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또한 많은 추측이 있다.

117:7.13 (1292.7) 여러 초우주의 현재 목표는, **하보나**가 그렇듯이, 그들의 상태 그대로 그들의 잠재성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성은 물리적 · 영적 달성, 아니 행정 · 정부 · 친교의 발전과도 관계된다. 다가올 시대에 불화(不和), 그릇된 조절, 잘못 적응하는 가능성은 초우주에서 궁극에 없어지리라고 항간에서 믿는다. 에너지

회로들은 완전히 균형된 상태에 있고, 지성에 완전히 복종할 것이며, 한편 성격이 있는 가운데 영은 지성의 지배를 마쳤을 것이다.

117:7.14 (1292.8) 아득히 먼 이 시절에, **최상위의 영** 성격과 **전능자의** 달성한 동력은 나란히 발전했을 터이고, **최상 지성** 속에서, 또 이로 인하여 통일되어, 그 둘은 **최상 존재**로서 사실이 되리라고 추측된다. 그는 우주에서 완성된 사실이다 — 모든 생물의 지능이 지켜볼 수 있고, 모든 창조된 에너지가 그에게 반응하고, 모든 영적 개체 안에서 조정되고, 모든 우주 성격자가 체험하는 그런 사실이다.

117:7.15 (1292.9) 이 개념은 대우주에서 **최상위**가 실제 통치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현재 **삼위일체** 행정가들이 그의 대행(代行)으로서 계속하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있지만, 일곱 초우주 사이의 현재 경계는 차츰 사라질 터이고, 대우주 전부가 완전하게 된 하나의 총체로서 작용하리라 우리는 믿는다.

117:7.16 (1292.10) 이때 아마 **최상위**는 **오르본톤**의 본부 **유버르사**에서 몸소 거할지도 모르고, 거기서부터 시간 세계의 우주들의 행정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추측일 뿐이다. 그래도 확실히, **최상 존재**의 성격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분명히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나 계신 그의 신 존재는 아마도 온 우주에 계속해서 퍼질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의 초우주 시민들이 **최상위**와 무슨 관계를 가질 것인지 모르지만, **하보나** 원주민과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사이의 현재 관계와 비슷한 무엇일지도 모른다.

117:7.17 (1293.1) 그 미래 시절에 완전해진 대우주는 현재 그 처지와 방대하게 다를 것이다. 공간에 있는 은하들의 조직에서 벌어지는 가슴 떨리는 모험, 불확실한 시간 세계들에 생명을 심는 일, 그리고 혼돈으로부터 조화를, 잠재성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의미로부터

진실을, 가치로부터 선을 진화시키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시간 세계의 우주들은 유한한 운명을 달성했을 것이다! 아마도 어느 공간에는 휴식이 있으리니, 이는 진화로 완전을 얻으려고 오랜 세월을 걸쳐 벌인 투쟁으로부터 쉬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쉬지 않는다! 그들의 진화의 선조, 투쟁하는 선조가 한때 **최상위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도전받은 것 같이, 분명히, 확실히, 용서 없이, 솟아나는 신, 즉 **궁극위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안정된 여러 우주에서 완전하게 된 이 시민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서, 사람의 궁극의 체험에서 드러나는 **우주의 아버지**에게 도달하는 추구, 사람을 유혹하는 초한적 추구의 초월적 장려함을 드러내려고 우주 운명의 커튼이 활짝 열릴 것이다.

117:7.18 (1293.2) [유란시아에서 잠시 머무르는 한 **막강한 사자**가 후원하였다.]